

나무는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우리도 시련으로 깊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 성전스님 -

용화사 지용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 1천만 원 보시

천안 용화사 지용스님이 지난 2월 6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보시했다. 스님은 시골의 작은 사찰에서 수행하며 한 톨 두 톨 모아온 정재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더 크게 발전하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쾌척했다. 스님은 “불교계에서 불자들과 스님들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불교병원의 성장 발전을 위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기부 소회를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스님의 발전기금 누적 기부액은 4,100만 원에 달한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2024학년도 전공의 수료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지난 2월 13일, 병원 4층 중강당에서 ‘2024학년도 전공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비롯하여 최동준 진료부장, 김미경 교육연구부장, 윤호영 한방간호팀장 등이 참석해 수료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총 7명의 전공의가 수료했으며, 인턴 과정에서는 임형건 외 2명, 레지던트 과정에서는 박시현 외 3명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이지원 전공의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논문 우수상을 받았다. 수료자들은 각 진료과에서 쌓아온 임상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설 명절 떡국 나눔 행사’ 개최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가 지난 1월 23일(목), 설날 연휴를 맞아 ‘설 명절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자와 가족들이 병실에서도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며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따뜻한 떡국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말기 암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총체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남은 시간을 보다 평온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떡국 나눔 행사와 같이 입원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